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Place and Date of Praying for the Engraving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김 성 수 (Sung-Soo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지(發願地)와 발원일(發願日) |
| 2.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단서 | |
| 3. 거란의 침략상황 및 현종의 남순(南巡) 여정 | 5. 결 론 |

초 록

이 논문은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刻板: 雕造)과 관련한 발원(發願)의 장소(發願地) 및 그 일자(發願日)의 문제를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단서는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초조대장경의 초창지단(初創之端)'의 내용에 입각하였다. 2) 거란군이 침략하고, 현종이 남순(南巡: 몽진)하다가 다시 개경(開京)으로 환궁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군신(君臣)이 함께 거란군(契丹軍)을 물리치기 위한 대규모 행사의 개최 또는 신명(神明)이 보답하는 제사(報祠)를 올린 기록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1011) 2월 정사일(丁巳: 13일)條의 내용이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 또한 역사적 진실(史實)을 담고 있는 기록임을 파악하였다. 3) 『고려사절요』 현종 2년(1011) 2월 13일의 기록 즉,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신명(神明)이 보답할 수 있는 제사를 올렸다'는 사항은 바로 2월 15일에 청주 행궁(行宮)에서 거행된 <연등회(燃燈會)>의 의식 및 제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연등회의 제례(祭禮)에서 신명께 기고(祈告)한 내용은 곧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이었을 것임을 입증하였다. 4) 그리하여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장소는 청주행궁(淸州行宮)이며, 그 발원일자(發願日)는 1101년(현종 2) 음력 2월 15일임을 규명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facts about the place and date of praying for the engraving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very first idea of engraving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was evidenced in the record of 'The beginning of *Tripitaka Koreana*' from 'Daejanggakpan Gunsin Gigomun' written by YiGyuBo. 2) After comparing the contents of 'Daejanggakpan Gunsin Gigomun' with the record of the third volume of 'Goryeosa Jeolyo' dated February 13, 1011, this researcher confirmed that 'Daejanggakpan Gunsin Gigomun' also recorded this historical fact. 3) In the third volume of 'Goryeosa Jeolyo' dated February 13th, 1011, it is documented that a ritual was held to pray to the gods of heaven and earth for expelling the Kitan from the country. Further, the document states that this particular ritual consisted of a ceremony of lanterns held at the temporary palace in Cheongju on February 15th, to report to the gods on 'the engraving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4) Therefore, it is verified that the date of praying for the engraving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was February 15th of the lunar calendar, 1011 (the second year of King Hyunjong's reign), and the place was the temporary palace in Cheongju.

키워드: 초조대장경, 발원(發願), 발원장소, 발원지(發願地), 발원일자, 발원일(發願日)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Praying, Place of Praying, Date of Praying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75-96, 2011. [DOI:10.4275/KSLIS.2011.45.2.075]

1. 서론

올해 2011년은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각판(刻板: 雕造)이 발원(發願)된 지 꼭 1000년이 되는 해이다. 초조대장경의 각판 발원 1000주년을 기념하게 하는 단서는, 이규보(李奎報)가 고종(高宗)을 대신하여 작성한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서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된 처음의 연유(緣由), 즉 '그 初創之端(초창지단)은 현종 2년(1011)의 일'¹⁾이라는 기록에 입각한 것이다.

초조대장경에 관하여, 일본인 학자 중 常盤大定은 '초조대장경의 조성 배경은, 암묵간에 북방 거란의 각장(刻藏)에 갈항(拮抗)하고 국력에 있어 뒤지나 문화상으로 우월하다는 포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규보의 기고문(<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타난 외적(거란 군대) 격퇴의 기원은 미신(迷信)적 분자가 혼입된 것'²⁾으로 폄하하였다.

池內宏 또한 고려대장경의 각판 사업에 관한 문화 방면의 업적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그[재조대장경] 조성 배경인 몽고 침략의 격퇴에 대한 기원을 고려 군신(君臣)의 종교상 미신으로 폄훼(貶毀)하였다.³⁾ 게다가 그는 '이규보가 본문(<대장각판군신기고문>)을 쓴 고

종 24년(1237)은 현종 2년(1011)과는 226년 후의 일로, 사료의 성질로 보아 신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⁴⁾ 현종 2년 이후 수차로 내침한 거란군(軍)이 퇴환한 연대와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문의 기사는 고종 때에 몽고의 군사들에게 소실(燒失)된 종래의 대장경판을 신조(新雕)하여 불력(佛力)을 빌어 병란을 면하기를 기원코자 하는, 그 당시의 실상으로부터 과거를 추정코자 하는 망단(妄斷)에 지나지 않는 것'⁵⁾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池內宏은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현종이 고비(考妣)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고, 이 사찰에 장경판을 시납(施納)하는 데 있었던 것'⁶⁾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池內宏의 주장은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기록을 왜곡(歪曲)하면서 억지로 날조(捏造)한 것이다. 왜냐하면, <玄化寺碑陰記(현화사비음기)>에 의하면, 실제로 현종이 현화사를 창건하면서 그의 부모를 위한 명복경(冥福經)으로 엄선한 불경은 『대반야경』 600권 · 『화엄경』 [40권 · 60권 · 80권 본] 3부류 · 『금광명경』 · 『묘법연화경』을 목판으로 판각하여 이 절에 비치하였다'라고 위 비문(碑文)에 굳건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현종이 그의 부모를 위하여 판각한 명복경은 이 4종의 불경(佛經)

- 1) 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丁酉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雜著. "... 初創之端則昔顯宗二年 契丹主大舉兵來征 顯祖南行避難 且兵猶屯松岳城不退 於是乃與群臣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丹兵自退. ..."
- 2) 常盤大定 1913,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28-321, 1164(金潤坤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1. 再引用).
- 3)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3號(日本 大正12年(1923) 8月): 『滿鮮史 研究』 中世2(1937), 567(김윤곤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1. 재인용).
- 4) 이른바 이규보의 문집에 수록된 기고문은 正史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빌미로 하여, 이 記事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5)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3號(1923年 8月), 307-362, 第三. 麗藏雕造 一. '雕造의發議'(김두중 1980, 『한국고인쇄기술사』(서울: 탐구당), 61. 재인용).
- 6)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김두중 1980, 61. 재인용).

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池内宏이 날조한 주장은 우리 민족문화의 탁월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 즉 ‘이른바 호랑이를 고양이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일제식민사관의 한민족 문화말살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고려대장경에 관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일본의 어용학자가 날조한 주장을 각 학문 별로 부분적으로 극복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 학자들의 날조된 주장을 일부 받

아들여, 이를 수긍하는 경향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초조대장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극복 내지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조대장경에 관한 더욱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역사학·불교학·서지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고려대장경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⁹⁾에도 불구하고, 정작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과 관련한 그 구체적인 발원 장소(發源地) 및 날자(發願日)에 대하여 직접 규명(糾明)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 7) 1018년(현종 9) 6월에 창건된 현화사(玄化寺)의 창건을 기념하여, 현종의 명으로 채충순(蔡忠順)이 직접 짓고 쓴 <玄化寺碑陰記(1022년 10월)>에 “... 채충순 받들어 짓고 씀. ... 성상(聖上)께서는 다시 발심하시고 서원하시어, 나라의 발전과 사직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매년 봄 4월 8일부터 ... 또한,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 다시 매년 7월 15일부터 3일낮 3일밤 동안 미타도량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시어 『大般若經』 600권, 『華嚴經』 [40권·60권·80권 본] 3부,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의 목판을 새겨 이 절에 비치하고, 별도로 반야경보(般若經寶)를 만들어 널리 이들을 인쇄하여 나누어주게 하였습니다...”(<http://blog.daum.net/ydoy0000/11786000> 참조: 이 블로그에는 현화사의 정경, 玄化寺碑의 양면 사진, 碑文의 사진, 내용의 원문(漢文) 및 우리말 번역문 등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음)라 하여, 『대반야경』을 비롯한 6종의 불경(佛經)을 엄선(嚴選)하여 명복경으로 삼고, 이를 목판으로 판각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명복경의 판각의 규모만 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물량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池内宏은 ‘현종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다시] 초조대장경 전체를 판각하였다’고 날조하였다.
- 8) 국내의 학자 중 ‘池内宏씨는 이규보의 글을 전혀 인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인용하면서 池内宏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佛力을 빌어 거란군을 물리치려는 목적으로 외적 격퇴를 위하여 조성했다’는 종래의 견해를 탈피하여, 초조대장경은 거란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遼(契丹)와 事大交流를 하기 시작한 친선 평화시대에 造成되었다고 보았다. 그 동기는 현종이 考妣를 추모하기 위하여 玄化寺를 창건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조성했다(문경현 1991, 489-491: 528-529).”는 주장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밖의 연구에서도 池内宏의 날조된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경향(장애순 2006, 35-36)도 보이는 실정에 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이 비록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려의 역사에 관한 正史의 직접적인 증거문헌 즉, 이른바 1次史料에서의 관련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추론도 어쩌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은 ‘13세기 몽고의 침략’이라는 우리 민족의 수난 시대에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의 복원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天地神明과 諸佛多에 올리는 진실되고 진솔(眞率)한 사연으로 구성된 맹서의 발원문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도문에 대하여, ‘외적(거란의 군대(11세기초) 및 몽고군(13세기))의 침략에 대한 격퇴의 기원은 미신(迷信)적 분자가 혼입된 것’으로 폄하하는 한탄스러운 일제강점기시대의 날조된 학설은 이제라도 학술적인 연구에 입각하여 정면으로 극복하고, 결단코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들은 ‘3.1 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한 일제의 ‘한민족(韓民族)의 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연구된, 이른바 식민사관에 입각한 어용학설들이기 때문이다.
- 9) 그 대표적인 연구들의 서지사항만 제시하면, ① 김윤곤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② 장애순 외 2006, 『고려대장경의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③ 김두중 1980, 『한국고인쇄기술사』(서울: 탐구당), 61-62. ④ 천혜봉 1980, 『나려인쇄술의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62. ⑤ 이기영 1976, 고려대장경, 그 역사와 의의, 『고려대장경』 제48권(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17. ⑥ 박영수 1959, 高麗大藏經板의 연구, 『백성욱박사 頌壽紀念 불교학논문집』(서울: 동국문화사), 413-453. ⑦ 안계현 1975, 대장경의 조판, 『한국사』 제6권(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9. ⑧ 남권희·정재영(조사연구책임자) 2010, 『일본 南禪寺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필자는 2010년에 발표한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대장각판군신기고문>과 『고려사』 제129권의 내용을 결합하여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거란군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있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이규보의 <기고문> 내용이 역사적 진실임을 입증(김성수 2010, 133-165)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위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정사(正史: 一次史料)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초조대장경 관련 기사를 발굴·재해석함으로써, 초조대장경의 각판과 관련한 그 구체적인 발원지(發源地) 및 그 발원일(發願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에 관한 사항은 역사적 진실(史實)임을 증명하고자 한다.¹⁰⁾

2.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단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과 관련된 단서(端緒)는 ‘재조대장경의 각판 발원문’인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大藏刻板君臣祈告文(丁酉: 고종 24: 1237)년 行)

국왕 諱[叡: 高宗]는 삼가 태자와 신하들과 함께..... 기고(祈告)합니다!

.....
[초조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연유(緣由), 즉] 그 초창의 단서(草創之端)를 살펴보면, 옛날 ‘현종 2년(1011: 辛亥)’의 일입니다. 거란주(契丹主: 거란 왕)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략하여,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의 군대는 송악성(松岳城)¹¹⁾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위없는 대원(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각성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初創之端則昔顯宗二年 契丹主大舉兵來征 顯祖南行避難 且兵猶屯松岳城不退 於是乃與群臣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丹兵自退).

생각컨대, 대장경도 하나이고(一也), 선후의 조판도 마찬가지이며(一也), 임금과 신하의 발원도 또한 똑같은데(一也), 어찌 유독 저 때의 거란병만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고는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하늘이 어느 정도 보살피 주시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지성으로 발원하는 바 간곡히 기도하오니 부디 굽어 살피소서!(然則大藏經一也 先

조사보고서』(〈南禪寺藏 고려판 『초조본대장경』 조사완료 보고회〉 보고자료집, 일시: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2시, 장소: 일본 교토 가든팔래스호텔 쿠라마름, 주최: 한국(사)장경도량 대장경연구소·일본 花園대학 국제선학연구소). ⑨ 그밖에 고려대장경의 연구에 관한 상세한 연구동향은, 김윤근 교수의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동향”(김윤근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24-3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10) 국내·외에서 현존하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인본(印本) 실물(實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초조대장경의 인쇄본(印本)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일본〈南禪寺〉보존 초조대장경의 규모와 실체가 ‘522종 1,825권 1,714책’임(남권희, 정재영 2010, 37)이, 남권희 교수의 연구조사팀에 의하여,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초조대장경 각 인본의 형태사항의 조사 및 특징 그리고 세부조사를 위한 사진촬영 등의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초조대장경의 인본을 통한 형태서지학적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초조대장경의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주제서지학적 관점에서의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여기에 밝혀둔다.
- 11) ‘松岳城’이라는 명칭은, 좁게는 ‘고려의 수도(都邑地)를 방위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규보가 이 문장에서 굳이 ‘송악성’이라고 쓴 광의(廣義)의 개념 즉, 국가통치자인 국왕이 거처하는 도읍지의 성곽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거란군이 침략한 고려의 국토(땅) 전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송악성’이라고 기입(記入)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後雕鏤一也 君臣同願亦一也 何獨於彼時丹
兵自退 而今達旦不爾耶 但在請佛多天 鑿之
之何如耳 苟至誠所發 … 伏惟昭鑒 云云).¹²⁾

라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동기는 [1010년(현종 1) 11월 16
일에]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 국토를 침
략하여, 개경(開京: 松岳城: 고려의 국토)에
서 물러가지 않으므로, 이에 '현종 2년(1011)에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대장경을 판각할 것을
맹서하자 비로소 거란 군사가 물러갔다'는 사
항을 분명하게 제시(明示)하고 있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종과 이규보를 비롯한 13세기
고려인들은 '현종이 신하들과 함께 초조대장경
의 각판을 발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제불다
천(諸佛多天)께서 보답하여, 고려 국토를 침
략한 거란군을 스스로 물러가게 하였다'라는
철석(鐵石)같은 확신 및 역사적 사례에 의한
굳건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문
장을 도저히 작성할 수 없었을 것임이 확실시
된다. 그리하여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는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에 의하여 제불다천께서
거란군을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라는 보답의
사례를 확신하는 기반 위에서, '재조대장경 각
판의 발원을 하늘에 기도하여 알림(祈告)으로

써 몽고의 군사 또한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문장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규보가 작성한 <대장각판군신기고
문> 내용의 진실성, 즉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
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전거(典據)를
『고려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고려사』 제
129권, 열전 제42, 최충헌 조(條)'에 기록되어
있는 <[최항에게 내리는] 조서(詔書)>¹³⁾에서
고종은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회고하기를,

[高宗] 41년(1254: 甲寅)에 … 明年[高宗
42(1255)]에 [최항(崔沆)에게 내리는] 조서
(詔書)에서 말하기를, “… 역대로 전해 내려오던
鎭兵大藏經이 몽고의 군사(狄兵)에 의하여 모두 불
타 버리고 ….”¹⁴⁾

라 하였다. 즉 고종은 초조대장경을 “鎭兵大藏
經(진병대장경)”이라고 명명(命名)하고 있음
을 주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고종은 '초조
대장경 판각의 발원이야말로 거란의 군사가 스
스로 물러가게 한 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
기 때문에 초조대장경을 '거란과의 전쟁(兵:
전쟁)을 진압한(鎭: 진압) 대장경'이라는 의미
로 “鎭兵大藏經”이라고 지칭하였음을 파악할

12) 李奎報 1237,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1237)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雜著.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svcid=KR&proid=5&arid=274&ContentNumber=1210&pageNumber=1247>>.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Content_preview.asp?arid=274&proid=5&pageNumber=1247&ViewType=realimage&imgname=>.

13) 즉 재조대장경의 조조가 완료(1251)된 후 4년째 되던 해인 1255년(고종 42)에, 위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당사
자였던 고종이 직접 말한, 이른바 '최항(崔沆)에게 내리는 조서(詔書)'임.

14) 『高麗史』第129卷, 列傳第42, 反逆3, 崔忠獻[崔怡·崔沆·崔埴]條.(高宗41年條). “[高宗]四十一年 … 明年王詔
曰, 且爽相周蕭曹佐漢君臣相資古今一揆 晉陽公崔怡當聖考登極之日寡人即祚以來推誠衛社同德佐理越 辛卯 邊將
失守蒙兵闖入神謀獨決斷群議躬奉乘輿卜地遷都不數年間官闕官靡悉皆營構憲章復振再造三韓且歷代所傳鎭兵大
藏經板盡爲狄兵所焚國家多故未暇重新別立都監傾納私財彫板幾半福利邦家功業難忘 嗣子侍中沆迺追家業匡君制難
大藏經板施財督役告成慶讚中外受福 ….”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장각관군신기고문>에 기록된 초조대장경 각관 발원의 내용은 역사적 진실(史實)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⁵⁾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 이규보의 <대장각관군신기고문> 내용을 단서로 하여, 초조대장경 각관 발원의 장소(發源地) 및 일자(發願日)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거란군이 침략하여 우리의 국토에서 전쟁을 치루는 기간 동안, 즉 현종이 남순(南巡: 몽진)하는 시점인 1010년 12월 하순부터 다시 개경으로 환궁(還宮)하는 1011년 2월 중순 사이의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거란의 군사를 물리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혹은 하늘(神明)에 기도하는 제사(報祀)를 올린 사항 등을 역사(正史)의 기록에서 추적·검색하고, 검색된 사항들과 이규보의 기고문 내용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초조대장경 각관의 발원지(發願地)와 발원일(發願日)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 거란의 침략상황 및 현종의 남순(南巡) 여정

앞의 장에서는 <대장각관군신기고문>과 <고종이 최항에게 내리는 조서>에 입각하여, 현종

이 초조대장경의 각관을 발원한 동기는 오로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으며, 임금과 신하들이 초조대장경의 각관을 발원한 년도는 현종 2년 즉 1011년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의 사료에서는 정작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발원한 장소 및 그 일자는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종이 1011년에 초조대장경 판본의 각성을 발원한 구체적인 장소(發源地)는 과연 어디이며, 그 일자(發願日)는 또한 언제인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일차 사료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려사』 제4권, 세가 제4, 현종 원년 및 2년조(條)와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문 대왕(顯宗元文大王)條에서 현종 원년(1010)의 문화적 대회의 개최 사항을 비롯하여 거란의 고려 침략 및 전쟁 당시의 상황들을 먼저 간추려 추적하고, 그 다음에 현종이 몽진하는 날부터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還都) 1011년 2월 중순까지의 남순(南巡: 몽진)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종 원년(1010) 윤2월 갑자일(甲子: 보름)에 연등회(燃燈會)를 부활시켰다.¹⁶⁾ 그리

15) 위와 같이 13세기 당시에는 이미 11세기에 조성되었던 초조대장경과 관련한 많은 기록들이 왕실(王室)이나 국가의 문서고(文書庫)에 잘 보존되어 충분히 열람할 수 있었거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기록정보들을 입수하거나 들었을 것임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즉, 11세기 당시 '대장경의 조성사업'은 지금의 '국토중단 고속도로 건설사업' 또는 '새로운 국제공항 및 접근 해상(海上) 대교(大橋)의 건설사업'과 같은 거국적인 대규모 국가사업(프로젝트)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록이나 전설(傳說)들이 무수히 전하고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장각관군신기고문>의 내용은 일차사료(一次史料: 正史)에 비견(比肩)한다.

16)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년(1010) 윤2월條. "나라(高麗)의 풍속에 왕궁과 국도에서 시골까지 1월 15일부터 이틀 밤 연등회를 베풀었는데, 성종 때부터 폐지하고 베풀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연등회를 부활시켰다(春閏二月 復燃燈會 國俗 自王宮國都 以及鄉邑 以正月望 燃燈二夜 自成宗以來 廢而不舉 至是 復之)."

고 그 해 11월에는 팔관회(八關會)도 부활시켰다.¹⁷⁾

2) 거란의 왕은 1010년(현종 원년) 10월 8일(癸丑)에 거란의 급사중(給事中) 고정(高正)과 합문인진사(閣門引進使) 한기(韓杞)를 고려에 보내어 '[거란의 왕이] 군사를 일으키겠다 [고려를 침략하겠다]'고 알렸다.¹⁸⁾ 또한 1010년 11월에 거란주(契丹主: 王)는 장군 소응(蕭凝)을 시켜 '직접 고려 침공을 지휘하겠다'는 것을 다시 통고하여 왔다.¹⁹⁾ 당시 고려는 10월 1일(丙午)에 이미 참지정사 강조(康兆)를 행영도 통사로 삼는 등 안소광(安紹光) 최현민(崔賢敏) 이방(李昉) 박충숙(朴忠淑) 최사위(崔士威) 등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군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통주(通州: 평북 선천)에 주둔하면서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3) 1010년 11월 16일(辛卯)에 거란의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명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여 흥화진(興化鎭: 평북 의주)을 포위하였으나, 순검사(巡檢使) 형부낭

중 양규(楊規)가 정성(鄭成)·이수화(李守和) 등과 함께 성(城: 흥화진)을 굳게 지켰다. 11월 24일(己亥)일에 통주성(通州城)을 방어하던 [고려군(軍)의 사령관 격인]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성의 남쪽으로 나와 거란군과 분전(奮戰) 하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그는 포로가 되었다.

4) 1010년 12월 경술일(庚戌: 5일)에 거란 군사가 곽주(郭州: 평북 정주군 곽산면)를 함락시키고, 이 성(城)에 군사 6천명을 남겨 수비하게 하였다. 임자(壬子)일에는 거란군은 청수강(淸水江: 청천강)에 이르렀다. 계축(癸丑)일에는 거란 군사가 서경(西京: 평양)에 이르러 중흥사(中興寺)의 탑을 불태웠다. 갑인(甲寅)일에는 숙주(肅州: 평남 평원군)가 무너졌다. 경신(庚申)일에는 양규(楊規)가 흥화진에서 군사 7백여 명을 거느리고 통주에 이르러 군사 1천 명을 수합하여, 신유(辛酉)일에 곽주를 습격하여 주둔했던 거란의 군사들을 모두 베어 죽이고, 성 안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²⁰⁾ 이날(辛酉)에 거란주가 서경(평양)을 공

17) ① 『고려사』 제4권 世家 제4, 현종 庚戌 원년(1010) 11월條. “庚寅 復八關會王御威鳳樓觀樂.”

②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년條. “예전에 성종이 ... 이[연등회와 팔관회]를 모두 폐지하고, ...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崔沆: 신라 6두품 숙위학생 출신으로, 태조에게 귀부하여 문필을 드날린 최언휘(崔彦擣)의 손자(『高麗史』 권93, 列傳6, 崔沆조(條))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十一月 復八關會 王 御威鳳樓 觀樂. 初 成宗 以雜技不經 且煩擾 悉罷之 但於其日 幸法王寺 行香 還御毬庭 受文武朝賀而已 廢之幾三十年 至是 政堂文學崔沆 請復之).”

18)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년, 10월 癸丑(8일)조. ‘契丹遣給事中高正 閣門引進使韓杞 來告興師. 參知政事李禮鈞 右僕射王同穎 如契丹請和.’

19) 『고려사』 제4권, 세가 제4, 현종 원년(庚戌) 11월조. ‘契丹主遣將軍蕭凝來告親征.’

거란의 왕은 1010년 5월에 이미 그의 신하들에게, 고려의 강조(康兆)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등극시킨 데에 대하여, 이는 ‘대역무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에 고려를 침략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20) 즉, 경신(庚申)일과 신유(辛酉)일의 기록에서는, 양규(楊規)가 군사들을 수합하여, 거란군의 후미(後尾) 부대인 곽주(郭州)에 주둔하고 있는 거란군 6천명의 군사를 습격하여 몰살시킨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사항은 ‘거란군의 보급로를 가차없이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고도의 전략적인 전술(戰術)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려군의 사령관이었던 강조가 방어하다가 전투 중 패전하여 함락되었던 통주성을 회복하여 다시 요새로 구축하였다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함락되었던 주요 요충지인 통주성을 탈환함과 동시에 적군(敵軍)의 후방 뒷덜미를 공략하고 교란시키면서, 또한 거란군의 전쟁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전과(戰果)를 올린 기록이다.

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포위를 풀고 동쪽으로 갔다. 계해(癸亥)일에 서경의 신사(神祠)에서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의 군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 임신일(壬申: 12월 27일)에 지채문(智蔡文)이 서경 전투에서 패전한 사실을 현중에게 아뢰니, 여러 신하들이 항복하기를 의논하는데, 오직 강감찬(姜邯贊: 948-1031)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예봉을 피하여 천천히 흥복(興復)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며, 마침내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가기를 권하였다. 현중은 하는 수 없이 이날(12월 27일) 밤에 후비들과 이부시랑 채충순(蔡忠順) 등 금군(禁軍) 50여 명과 함께 개경(開京) 궁궐을 나와 남쪽으로 몽진의 길을 떠났다. 1010년 선달 그믐날 무렵인 계유(癸酉)일에 왕의 일행이 적성현(積城縣: 경기도 연천) 단조역(丹棗驛)에 이르렀다.

5) 한편, 1011년(현종 2) 정월 초하루인 을해일(乙亥: 1월 1일)에 거란의 왕이 이끄는 군대가 개경(開京)에 입성하여, 태묘와 궁궐·민가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렸다. 이 날 현중은

광주(廣州: 경기도 광주)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왕 일행은 몽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²¹⁾ 즉 이날 두 왕후가 간 곳을 잃어, 채문에게 시켜 찾게 하였다. 채문이 요탄역(饒吞驛)에 이르러서야 왕후들을 만나 모시고 돌아오니, 왕이 기뻐서 왕후를 위하여 광주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무인일(戊寅: 1월 4일)에 왕이 광주를 출발하여 비뇌역(鼻腦驛)에서 머물렀다.²²⁾ 신사일(辛巳: 7일)에는 왕이 공주(公州)에 머물렀고, 임오일(壬午: 1월 8일)에 삼례역(參禮驛: 전북 전주군 삼례면)에 이르니 전주절도사 조용겸(趙容謙)이 야복(野服: 잠옷)차림으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는 불충(不忠)을 저질렀다.²³⁾ 이에 왕의 일행은 태조 때부터 인연이 맞지 않았던 전주(全州)²⁴⁾는 피하여, 장곡역(長谷驛)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정해일(丁亥: 1월 13일)에는 왕의 일행이 노령(蘆嶺)을 넘어 나주(羅州)에 들어갔다.²⁵⁾ 경인일(庚寅: 1월 16일) 밤에 통사사인(通事舍人) 송균언(宋均彦)과 별장(別將) 정열(丁悅)이 거란의 전봉(前鋒)인 원수(元帥) 부마(駙馬)의 서신과 고려 하공진의 장계(奏狀)를 가지고 왔다. 채문이 그들을 데리고 행궁으로 나아가니, 왕이 하

21) 왕의 몽진이 시작되자, 선달 그믐날 밤에 시종하던 신하와 환관 및 궁녀들이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현종 2년(1011) 정월 정축일(丁丑: 1월 3일)에는, 청화사(淸和師)로 거란의 군영으로 파견되었던 하공진·고영기가 거란의 진영에 이르러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하니, 거란주가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하공진 등을 붙잡아 두니, 호종하던 여러 신하들은 ‘하공진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흩어져 달아나는데, ‘오직 충숙(忠肅)·장연우(張延祐)·충순(忠順)·주저(周佇)·유종(柳宗)·김응인(金應仁) 만은 떠나가지 않았다’(『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辛亥)條)라고 기록하고 있다.

22) 이날 밤에는 호종하던 장수와 군사들이 ‘처자를 찾는다’ 청탁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23) 조용겸의 불충은 이 해 8월에 ‘귀양의 징벌’을 받게 된다(8월에 형부(刑部)가 아뢰기를, “조용겸(趙容謙) 유승건(柳僧虔) 이재(李載) 최즙(崔戢) 최성의(崔成義) 임탁(林卓)은 주상께서 남쪽으로 행차하실 때에 행궁을 놀라게 하였으니, 제명하고 귀양보내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辛亥) 8월條)).

24)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完州(全州)는 후백제의 도읍지였다.

25) 태조 왕건이 고려의 건국하기 이전의 연고지가 바로 나주(羅州)였다. 따라서 현중은 이 지역이 후백제 지역의 땅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판단하여 나주까지 몽진한 듯하다.

공진의 장계를 보고, 거란의 군사가 [개경에서] 물러간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을미일(乙未: 1월 21일)에 현종은 행차(行次)를 [북쪽으로] 돌려서 북룡현(伏龍縣)에서 머물렀다. 왕의 일행은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는, 경자일(庚子: 1월 26일)에 전주(全州)에 머물러 7일을 지냈다.²⁶⁾

그러나 이 때 수도 개경(開京)의 북쪽인 평안도에서는 여전히 거란과의 전투는 치열하였으며, 고려군의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린 기록도 많이 보인다.²⁷⁾ 당시 고려에는 거란군과

의 전투 중에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최후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산화(散華)한 장수와 군사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 2월 정미일(丁未: 3일)조의 하단에, '[현종은] 양규에게 공부상서를, 김숙흥에게 장군(將軍)을 증직(贈職)하였다'라는 기록도 확인된다.²⁸⁾²⁹⁾³⁰⁾

한편, 『고려사』 제4권, 현종 2년(1011) 1월 계묘일(癸卯: 29일)조에 '거란주가 군대를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다(癸卯 契丹

- 26) 이 기록은 눈여겨볼만 하다. 즉, 1월 8일의 몽진중 왕의 일행이 전주(全州) 부근 삼례역에 이르렀을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의 무례함으로 인하여 결국 전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곡역까지 가서 유숙한 사실(脚註 23)의 본문, 참조 요)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현종은 이와 같은 전주에서 7일 동안 머물렀을 때 어떠한 심사숙고(深思熟考)에 잠겨 있었을까? 혹여,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그의 조부(祖父)인 태조 왕건의 '고려 건국의 이념' 등을 생각하며, 비록 이번 전쟁에서는 몽진의 수모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정신적인 방법론 즉, 거란의 침략에 맞선 국민적 결속의 필요성과, 거란에 대한 문화적인 우월성을 뒷받침해 줄 사상적(思想的) 기반의 마련 등에 대한 여러 방안에 골몰하지는 않았을까?
- 27) • 신묘일(辛卯: 1월 17일)에 귀주 별장(龜州別將) 김숙흥(金叔興)이 중랑장(中郎將) 보량(保良)과 함께 거란군사를 쳐서 머리 1만여 급을 베었다.
 • 임진일(壬辰: 1월 18일)에 양규(楊規)가 거란군사를 무로대(無老代: 평북 의주군)에서 습격하여 머리 2천여 급을 베었고, 사로잡혀 있던 남녀 3천여 명을 빼앗았다.
 • 계사일(癸巳: 1월 19일)에 양규가 또 이수(梨樹)에서 싸워 석령(石嶺)까지 추격하여 머리 2천 5백여 급을 베고, 사로잡혀 있던 남녀 1천여 명을 빼앗았다.
 • 병신일(丙申: 1월 22일)에 양규가 여리참(餘里站)에서 싸워 머리 1천여 급을 베고, 사로잡혀 있던 남녀 1천여 명을 빼앗았다. 이날 세 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 임인일(壬寅: 1월 28일)에 양규(楊規)가 다시 거란군사의 전봉(前鋒)을 애전(艾田)에서 맞받아 쳐서 머리 1천여 급을 베었다. 조금 후에 거란주(王)의 대군(大軍)이 불시에 이르자, 양규와 김숙흥(金叔興)이 종일토록 힘껏 싸웠으나 군사가 모두 죽고 화살이 다하여, 모두 적의 진중(陣中)에 뛰어들어 죽었다. 특히 양규는, 후원도 없이 외로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 달 동안 모두 일곱 번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거란군사를 매우 많이 죽이고 사로잡혀 있던 사람 3만여 명을 빼앗았고, 낙타·말·무기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얻었다. 거란의 군사는 고려의 여러 장수들에게 초격(鈔擊)되었고, 또 큰 비로 인하여 말과 낙타가 지쳤으며 무기를 모두 잃어버렸다.
- 28) 위 각주의 설명주(註文)에서 언급한 '1월 28일의 거란과의 전투' 상황에 대하여, 현종은 2월 3일에야 비로소 위 양규의 전사 및 그 전투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에 곧바로 양규와 김숙흥을 애도(哀悼)·증직(贈職)한 듯하다.
- 29)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 4월조에 현종은 유사에 명하여 양규의 아내 은율군(殷栗郡君) 홍씨에게 곡식을 주고, 그 아들 대춘(帶春)을 교서랑(校書郎)에 임명하고, 왕이 친히 홍씨에게 교서를 지어 내려주기를 "너의 남편은, 그 재주는 장수의 지략을 갖추고 겸해 정치하는 도리를 알아 절의를 다하고 정성을 바쳤으니, 충성스러운 지조는 비할 데가 없다. 요전에 북쪽 변경에서 구적(寇賊)을 뒤쫓아 잡아 성(城)과 진(鎭)이 보전되고, 여러 번 싸움에 이겼으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렀으니, 항상 그 공로를 생각하여 너에게 종신토록 해마다 벼 1백 섬을 내려 주리라." 하였다.
- 30)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2년 8월조(條)에 현종이 교하기를 "증 장군(贈將軍) 김숙흥(金叔興)이 스스로 변성(邊城)을 지키면서 적군과 싸우는 데 용감하여, 이미 파죽지세로 공을 이루었으나 마침내 진중에서 목숨을 바쳤다. 그 공로를 생각하니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어야겠다. 그 어머니 이씨에게 한평생 해마다 곡식 50석을 주라." 하였다.

主渡鴨綠江引去)³¹⁾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절요』 제3권에 '1월 계묘일(癸卯: 29일)에 [거란군] 압록강을 건너 군사를 이끌고 물러가는데, 진사(鎭使) 정성(鄭成)이 이를 추격하여, 그들이 반쯤 건너갔을 때에 뒤에서 치니, 거란 군사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³²⁾ 항복했던 여러 성이 모두 수복되었다'³³⁾고 기록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이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일차 사료(史料)에는 '이 당시 남순(南巡)의 여정에 있었던 현종에게 당시 거란군의 압록강 이북 퇴각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나 전령(傳令)

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종과 그 수뇌부 및 고려의 장수(將帥)들과 군사들에게는 거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³⁵⁾

실제로 『고려사』 제4권 등에 의하면, '현종 2년(1011) 4월 을축(乙丑)일에 공부랑중 왕침(王瞻)을 거란에 사반사(謝班師)로 파견하였다'³⁶⁾³⁷⁾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고려 현종은 거란의 왕에게 '거란군대를 고려 땅에서 철수한 데 대한 외교적인 사의(謝儀)를 표시함'으로써, 거란과의 전쟁이 더 이상 지속

31) 『고려사』 제4권, 世家 4, 현종 2년(辛亥)條.

32) 아마도 이는 이 당시에 거란의 왕이 직접 이끄는 주력 군단만 압록강을 도하여 북쪽으로 이동한 상황을 기록한 듯하다. 왜냐하면, 거란군 쪽에서는 각 부대별로 분산하여 각각 압록강 이북으로 후퇴하는 도중 혹은 고려의 군사들이 거란군의 퇴로(退路) 중간이나 또는 그 후미를 급습하는 것을 우려하여, 거란군의 후방 방어 부대가 압록강 이남의 접경 및 전략 요충지에 여전히 남아서, 고려군의 공격을 견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상황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쟁중 도하작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를 침략할 때 거란의 왕이 이끌고 온 군사는 40만이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고려의 국토 안에서 고려군과의 전투중 5-10만명의 거란 군사가 죽었다고 가정(假定)하더라도, 당시의 압록강에는 다리(橋梁)도 없는 상태에서 후퇴할 때, 30-35만명의 군사가 전쟁의 중장비(重裝備)로 무장한 상태로 한꺼번에 압록강을 도하(渡河)하여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위의 본문에서 '거란 군사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압록강의 강물이 완전히 결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 후퇴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란 군대의 각 부대별로 압록강을 건너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임은 물론이다. 또는 1011년 2월 초순 또는 중순까지 시일을 끌면서 거란의 군대 전체가 비록 압록강 이북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거란의 군대가 압록강 이북에서 안전하게 전열(戰列)을 다시 정비하고, 전쟁의 보급물자와 보급대열을 추가로 확보하여, 고려를 재차 침략하기 위하여 다시 압록강을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33) 『고려사절요』 제3권 辛亥二年(1011)條.

34) 『고려사절요』는 조선시대 초기(1452년)에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서술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거란의 왕이 이끄는 주력부대가 이 때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다는 것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이 부분(『고려사절요』 제3권 辛亥二年(1011) 1월 계묘(癸卯: 29일)條)만 보고, 거란과의 전쟁이 이때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35) 각주 27)의 주문(註文)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월 28일의 전투에서는 후퇴하는 거란군의 주력군대와 양규·김숙홍이 지휘하는 고려군대와의 치열하고도 치열한 전투에서, 양규와 김숙홍은 장렬하게 전사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마치 거란과 고려와의 전투가 끝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여타(餘他)의 고려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퇴각하는 거란군 각 부대의 후미(後尾)를 습격하면서 끈질기게 공격을 계속함으로써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게 지속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후퇴하는 군대에 대해서 반드시 그 후미를 급습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전투를 벌여야만 퇴각하는 거란군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회군(回軍)하여 공격하거나 재침(再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6) 『고려사』 제4권, 世家 4, 현종 2년(辛亥)條.

37) 『고려사절요』 제3권 辛亥二年(1011) 4월條, "乙丑 遣工部郎中王瞻, 如契丹, 謝班師."

되지 않도록 조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란과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왕침을 거란에 파견한 시점(時點)인 1011년 4월에야 비로소 종결(終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지(發願地)와 발원일(發願日)

앞 장에서는 거란과의 전쟁 상황 및 약 한 달 이상에 걸친 현종의 남순(南巡: 몽진)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10년 12월 하순부터 1011년 2월 10일까지의 『고려사절요』와 『고려사』의 기록에서는 현종 일행의 분주한 남순 과정 및 거란과의 전쟁 상황만 전개되고 있을 뿐, 현종과 그 신하들이 일정한 의례를 치루면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發願)과 관련이 있음직한 그 어떤 기록의 실마리(端緒)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1011년 2월 초순 현재 거란과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규보가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제시한 이른바 ‘현종 2년(1011)의 일’에서 거란군을 스스로 물러가게 한 ‘대장경 판본의 각성(刻成)에 관한 맹서(誓)’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정사(正史)들의 기록에서 현종 2년(1011) 2월의 나머지 기록, 즉 ‘현종 2년 2월 丁

巳(13일)조(條), 己未(15일) 및 庚申(16일)條, 丁卯(23일)條’ 등에서 현종이 청주(淸州)에서 머물렀던 사항 및 청주를 출발하여 개경에 환도(還都)할 때까지의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검색·추적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절요』 제3권 ‘辛亥 2년(1011)년 2월 丁巳(13일)條에서 현종의 이른바 ‘청주 행궁(淸州行宮)의 유숙(留宿)’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 2월 정사일(丁巳: 13日)에 왕이 청주(淸州)에 머물렀다(二月 丁巳 次淸州).

○ 감찰어사 안홍점(安鴻漸)이 아뢰기를, “거란 군사가 장단(長湍)에 이르자, 바람과 눈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감악(紺岳)의 신사(神祠)에 [고려 군대의] 깃발과 군마(軍馬)가 있는듯하여, 거란 군사가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진(秦: 前秦)나라 부견(苻堅)³⁸⁾이 진(晉)나라를 칠[치러 갔다가 패하고 오는 길에] 때에 팔공산(八公山)의 초목(草木)이 모두 진(晉)나라 군사로 변한 것으로 보여서 두려워 물러갔습니다.’ 하오니, 신명(神明)이 돕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請)컨대, 소임을 맡은 관아(所司)에 명하시어 ‘[신명(神明: 諸佛多天)이]³⁹⁾ 보답하는 제사(報祠)’를 지내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따랐다(監察御史安鴻漸 上言 丹兵 至長湍 風雪暴作 紺岳神祠 若有 旌旗士馬 丹兵 懼不敢前. 昔 苻秦 伐晉 望見八公山草木 變爲晉兵 畏而退去 神明所贊 古今 何殊 請令所司 修報祠 從之).⁴⁰⁾

38) 부견(苻堅: 337-385, 在位: 357-385)은 중국 5호16국 시대 전진(前秦)의 3대 황제. 그는 372년에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하게 한 인물이다.

39) 위의 인용문에서 ‘神明’이라는 용어는 이 내용과 동일한 문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는 ‘諸佛多天’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神明’과 ‘諸佛多天’을 아울러 기입(併記)하여 보완하였다. 왜냐하면, 불교국가에서 ‘神明’은 곧 ‘諸佛多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0) 『고려사』 제4권, 世家 제4, 현종 2년(辛亥)條에서는 위 인용문의 부분(감찰어사 안홍점의 진언에 관한 내용)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조선시대 유학(儒學)의 이념으로 무장되었던 『고려사』의 편찬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기초 자료(史料)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른바 고려시대 불교의 신이적(神異的)이고 기이(奇異)한 요소들을 正史의 기록에서 삭제할 때, 함께 삭제된 결과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기미일(己未: 2월 15일)에)⁴¹⁾ [청주]행궁(行宮)에서 연등회를 베풀었다. 이후에는 으레 2월 보름에 연등회를 거행하였다(設燃燈會于行宮 是後 例以二月望 行之).

○ 경신일(庚申: 16일)에 [왕이] 청주를 출발하여, 정묘(丁卯: 23일)일에 개성(京都)에 돌아와서 수창궁에 거처하였다(庚申 發淸州 丁卯 還京都入御壽昌宮).⁴²⁾

라 하였다. 이제 위의 인용문에 함축된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2월 13일(丁巳)에 감찰어사 안홍점이 현종에게 아뢰는 것은 [1010년 12월 갑술(甲戌)일에] 거란 군사의 선봉대가 장단(長湍: 경기도 파주시)⁴³⁾까지 왕의 일행을 추격하였을 때, [그 남동쪽에 있는] 감악(紺岳: 감악산: 경기도 양주시 경계의 산)⁴⁴⁾의 신사에 고려 군대의 깃발과 군마(軍馬)가 있는 듯하여, 거란군은 두려워 더 이상 왕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한 실

제 상황, 즉 이른바 '감악 신사의 기이(奇異)'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상황은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1년(1010)년 12월 갑술일(甲戌: 12월 그믐 경)조>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란의 선봉대가 개성의 남동쪽에 있는 임진강을 건너 창화현(昌化縣: 경기도 양주시)까지 왕의 몽진 일행을 추격하였다가 개경으로 되돌아간(回軍) 사실'⁴⁵⁾과 일치한다. 따라서 안홍점은 현종에게 불과 1개월 이전의 긴급했던 상황, 즉 거란군이 현종의 일행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군사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감악 신사의 기이'는 곧 '신명(神明)이 현종을 도와준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감악 신사의 기이'를 제시한 후, 안홍점은 다시 중국의 고사(故事) 중 '전진(前秦)의 황제 부견(苻堅)이 진(晉)나라를 치

41) 『고려사』 제4권 世家 제4, 현종 2년(辛亥) 2월 己未日條에서 보완하였음.

42)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문대왕(顯宗元文大王), 신해 2년(1011)條.

43) 장단(長湍):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과 개성직할시 장풍군 일대에 있던 옛 고을(장단도호부). 1018년(현종 9)에 다시 '장단현'으로 바뀌었다. ... 1972년에 남한에 속한 장단면·진서면·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나,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1996년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2-13권에 의하면, 장단도호부는 파주계(坡州界) 북쪽 26리의 지점이다.

44) 『고려사』에서는 감악산이 '감악(紺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감악산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양주시(古地名: 창화현(昌化縣))·연천군 사이에 있는 산으로, 예부터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고 하여 감악(紺岳) 즉 감색 바위산이라 불렀다.

45)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년(庚戌: 1010) 12월 갑술일(甲戌: 그믐 경)條. "갑술일에 왕이 양주(楊州)에 머무르니, 하공진이 아뢰기를 '거란이 본디 역적[거란이 역적으로 여긴 이는 고려의 강조(康兆)를 의미함]을 토벌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미 강조를 잡아갔으니, 만약 사신(使臣)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군사를 돌이킬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점을 쳐서 길한 패를 얻으니, 드디어 하공진과 고영기(高英起)를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거란의 진영으로 가게 하였다. 창화현(昌化縣: 경기도 양주시)에 이르러, 표문을 낭장(郎將) 장민(張旻)과 별장(別將) 정열(丁悅)에게 주어 먼저 군문 앞에 가서 고하기를, '국왕이 와서 뵈기를 진실로 원하나, 다만 군대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또 내란으로 인하여 강 남쪽으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배신(陪臣) 하공진 등을 보내어 사유를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공진 등이 또한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니 빨리 군사를 거두소서.' 하였다. 장민 등이 다다르기 전에 거란 군사의 선봉이 벌써 창화현에 이르렀다. 공진 등이 앞의 뜻을 자세히 진술하니, 거란 군사가 묻기를 '국왕은 어디 있느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지금 강 남쪽을 향하여 가셨으니 계신 곳을 알 수 없다' 하였다. 또 '길이 먼가? 가까운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강 남쪽이 너무 멀어서 몇 만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하니, 뒤쫓던 거란의 군사가 그제야 돌아갔다." [거란 선봉군대의 임진강 이남까지 몽진 일행의 추격 및 회군].

리 갔다가 패하고 오는 길에, 팔공산의 초목(草木)들이 모두 진(晉)나라 군사로 보여, 부견의 군사들이 놀라 무너졌다'는 이른바 '진진 부견의 고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부연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사항은, 거란군이 심리전(心理戰)에서 패배하여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조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리하여 안홍점은 현종에게 다시 진언하기를, "신명이 돕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오니, 청컨대 소임을 맡은 관아에 명하시어 [신명이] 보답하는 제사(報祠)'를 지내게 하소서!"라고 제안하는 문장이 있고, 이 문장 다음에 연이어 "從之[공정의 의미]"라 하여, '현종은 안홍점의 제안을 직접 실천하였음'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안홍점의 진언은 '하늘(神明)이 감동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주제를 물색하여 발원(發願)하는 제사(祠)를 올림으로써 이에 신명이 보답(報)하시어, 거란군이 고려 땅에서 스스로 물러갈 수 있도록 조처하소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명이 감동하여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발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10세기말 11세기초 우리 선조 고려인들은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문화적 관심사⁴⁶⁾였던 '대장경 각판의 발원'을 의미하며, 이 발원문으로 제불다친의 한량없는 자비심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제사(報祠)를 올림으로써 침략한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평화적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안홍점의 진언은, 이규보가 고종 임금을 대신하여 작성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밝힌 '현종 2년의 일(初創之端 則昔顯宗二年)'에서

그 초창의 단서(草創之端)를 살펴보면, 옛날 '현종 2년(1011: 辛亥)'의 일이옵니다. 거란주(契丹主: 거란의 왕)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략(來征)하여,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병은 송악성(松岳城: 개성)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위없는 대원(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작성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사(丹兵)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니다.⁴⁷⁾

46) 971년에 송(宋) 태조의 칙령(勅令)으로, <開寶則板大藏經(개보칙판대장경: 촉판대장경)>이 조조(雕造: 983)되자, 이 대장경의 인쇄본(印本)이 991년(成宗 10)에는 '한언공(韓彦恭)이 宋에서 대장경 481함 2,500권[480함 5,048권]의 오기(誤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宋의 황제가 고려에 대장경을 주었다면 온전한 완질(完帙)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및 『御製秘藏錄(어제비장전)』 등을 가지고 왔다(① 『고려사』 성종 世家 10년, 4월 庚寅條. ② 『고려사』 권93, 韓彦恭條)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송나라의 사례와 같이, 당시 고려에서의 최대의 문화적 관심사는, 오로지 '고려에서도 대장경을 각판(刻板: 雕造)하는 일만이 거란에 대한 문화적 우위(優位)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을 것임은 확실시 된다. 그리하여 大覺國師 의천(義天)이 <代宣王諸宗教藏影印疏(대세자제종교장조인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종께서는 5천축[권]의 비장을 새기셨으며, 문종께서는 천만송의 거란(契)경을 새기셨습니니다(顯祖[顯宗]則彫五天軸[卷]秘藏 文考[文宗]乃鏤千萬頌之契經)"(『大覺國師文集』 卷第 15, 所在)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우리는 현종(顯宗)시대에 초조대장경 5000권을 조조한 것이 확실함을 알 수 있다. 즉 991년 韓彦恭이 송나라로부터 수입한 개원칙판(촉판)대장경 등이 현종의 재위기간(1009-1031)에 이미 5000여권의 대장경으로 완전히 판각되었다는 사실(史實)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正史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여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사실(史實)들을 부인(否認)하는 일은 기필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천이 세자를 대신하여 제종교장(諸宗教藏: 屬藏經)을 正藏(초조대장경)에 이어서 판각(板刻)하고자 하여, 간곡한 상소문을 국왕께 올리는 마당에, 그 내용 속에 일부러 거짓된 사실을 기록하였을 일은 만무(萬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覺國師文集』이나 『東國李相國集』 등 과거 문집 속에서의 기록 또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은 역사적 진실의 사료(史料)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리는 문장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함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⁴⁸⁾ 왜냐하면 당시 아시아 각국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대장경의 각관(雕造)'보다 그 이상의 무상대원(無上大願)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려사절요』 제3권 '辛亥 2년(1011)년 2월 丁巳(13일)'조에 입각하면, 안흥점의 진언에 의하여 현종과 그의 신하들은 거란군이 고려 땅에서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늘(諸佛多天)께 제사(報祀)를 올렸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 제사에서의 발원(發願)은 '대장경의 각관을 맹서(誓)하는 내용'임이 확실시(確實視)된다.

4) 그렇다면 1011년 2월의 어느 시기에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제사를 올림으로써 신명이 보답하게 하였는가?

이 문제는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2년 2월 丁巳(13일)조의 하단에서

○ [현종 2년 2월, 기미일(己未: 2월 15일)에] [청주행궁(行宮)에서 연등회(燃燈會)를 베풀었다. 이후에는 으레 2월 보름에 연등회를 거행하였다.⁴⁹⁾

라 하여, 2월 15일에 청주행궁에서 <연등회>를 개최한 사실을 특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연등회>⁵⁰⁾는 고려 건국 이후 줄곧 시행되다가, 성종 때(987) 일시 폐지되었으나, 1010년(현종 1) 윤2월 15일에 부활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이고 국가적인 불교 집회 행사였다. 특히 상원연등(上元燃燈)⁵¹⁾은 봄을 맞는 절기에 등불을 밝히며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祈願)하는 행사였음을 주목할 수 있다.

현종은 이러한 <연등회>라는 대규모의 불교 집회를 그것도 거란과의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게다가 몽진 중에 있는 국왕이 2월 15일(己未) 당일에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거행한 연유(緣由)는 다음의 몇 가지 관점(안

47) 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丁酉(1237)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雜著.
 48) 즉 안흥점이 현종에게 진언한 내용을 226년 뒤 이규보가 <[재조]대장각판근신기고문>에서 초조대장경의 草創之端으로 상세하게 풀어 쓴 기고문(祈告文)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9)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문대왕(顯宗元文大王), 辛亥 2년(1011) 2월條.
 50)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대에 <팔관회(八關會)>와 더불어 국가적인 행사로 시작되어 주로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바치는 공양 중 등공양(燈供養)이 있는데, 이는 부처 앞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여 부처의 덕을 찬양하고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연등회>의 종류에는 '상원(上元)연등'과 '초파일(初八日)연등'이 있다. 상원연등은 매년 정월 보름날에 왕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틀 동안 등불을 밝혀 다과를 베풀고, 음악과 춤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부처를 즐겁게 하여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태평을 기원(祈願)하는 행사**이다. 상원연등은 불교적인 의미와 함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년기원제와 결합된 행사이다. 신라시대 정월 15일에 행해진 연등은 바람과 비의 신(神)인 용신(龍神)과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별자리(天文太一星宿)에 드리던 풍년기원제와 불교의 등(燈)공양이 결합되어 행해진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등회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의해 거국적인 행사로 행해졌다. 이후 성종 때 유학자들의 강한 반대로 일시 폐지했다가, 1010년(현종 1) 윤2월 보름에 부활되었다.
 51) 중국에서의 상원절(上元節)은 '1월 15일'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도읍지에서 봄(春)을 맞이하는 절기이다. 한편 고려의 도읍인 개경은 중국의 도읍보다 그 위도(緯度)가 높기 때문에, 2월 15일이나 되어야 비로소 봄을 맞는 절기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고려 현종이 이와 같은 상원연등을 '2월 15일'의 날짜로 변경하여 부활시킨 이유는, 성종 때 연등회가 폐지된 동안 민간에서는 재래적인 농사를 시작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례의 절기 풍속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의례로 포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원연등의 유제로 내려오는 상원도량을 폐지하고, 2월 보름으로 연등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안지원 1999, 111).

지원 1999, 103-104 및 110 참고)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송(宋) 태종 옹희(雍熙: 984-987)년 간에 거란군이 송나라에 쳐들어와 국경에는 계엄이 선포되고 성(城)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상원절(上元節)을 맞아 연등회를 개설하여 전란의 불안을 진정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주목하면, 고려 현종 또한 전란으로 인한 국민(百姓)들의 혼란과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몽진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집회인 〈연등회〉를 개최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²⁾

둘째, 거란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려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가의 수호를 위한 민족적 단결과 결속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사상적 기반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은 고려 건국의 시조인 태조 왕건의 유조(遺條)인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등장시키게 되었으며, 고려의 국가의례에서 태조(太祖)

신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하여 〈연등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주목하여 보면, 현종은 〈연등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란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이와 동시에 거란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의 수호 및 민족적 대동단결과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의 마련을 불교, 즉 ‘대장경 각판(刻板)의 발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시의 고려 불교문화에서 거란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함으로써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책(方策)은 오직 ‘대장경 각판의 발원’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11년 2월 15일에 청주행궁에서 개최된 〈연등회〉의 공식적인 제례에서 신명(諸佛多天)께 올리는 ‘대장경 각판을 맹서하는 발원문(發願文)’이야말로 그 어떤 제물보다 더욱 감동스러운 무상대원(無上大願)이기 때문에, 이에 제불다천의 보답으로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평화적 방안을 선택하

52)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대왕 辛亥 2年 1月 및 2月'조에 의하면, '현종은 1월 경자일(庚子: 26일)에 전주에 머물러 7일을 지내며 중대성(中臺省)을 폐지하고 다시 중추원을 설치하였고, 2월 정미일(丁未: 3일)에 왕이 전주를 출발하여 무신일(戊申: 4일)에 공주에 머물러 6일을 지냈다. 왕이 공주에 머물 당시 절도사 김은부(金殷傅)가 만발을 시켜 어의(御衣)를 지어 바쳤다. 그로 인하여 왕은 이 여인을 후비(后妃)중의 한 사람으로 맞아들이니 곧 원성왕후(元成王后)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현종은 2월 13일이 되어서야 청주에 도착하였다. 현종이 남쪽으로 몽진을 떠날 때에는 그 이동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반면에 왕이 나주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는 길에는, 현종의 일행이 전주와 공주에 체류한 시일은 무려 13일에 달한다. 흡사 가까운 시일 이내에 어떤 특정의 장소에서 모종의 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일부러 지체하면서 기다리듯 전주와 공주에서 체류한 시일이 의외로 너무 길었다고 볼 수 있다. '현종은 왜 그렇게 전주와 공주의 체류 시일을 길게 잡았을까? 이것은 혹여 현종이 전주에 7일을 머물고, 공주에서 6일을 더 머물면서 각 지방의 세력과 왕실과의 유대관계 강화·결합(원성왕후와의 결혼) 및 개경으로 환도할 대의명분 등의 축적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중원(中原) 교통의 요지인 청주에서 2월 15일에 〈연등회〉의 개최할 것을 전주에서 미리 작심(作心)하고, 이 날의 행사 개최를 위하여 사전(事前)에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전주와 공주에서 지체한 연유(緣由)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2월 정사일(丁巳: 13일)에 청주에 도착하여 15일에 곧바로 〈연등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었을까?' 비록 현종이 몽진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국가적인 행사였던 〈연등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았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필자의 위의 여러 의문은 그 개연성(蓋然性)이 농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감찰어사 안홍점이 진언한 '신명이 보답하는 제사(報祠)'를 '현종이 직접 실천하였다(從之)'고 하는 『고려사절요』 제3권의 관련 기사와, 〈연등회〉를 개최하는 근본 목적인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이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감'이라는 내용으로 비로소 일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의 와중에서 왕이 몽진하는 수난 가운데, 특히 도읍지도 아닌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개최하는 마당에, 이러한 연등회의 제사에서 하늘에 기고(祈告)할 내용이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태평을 위한 전쟁의 종식 및 침략한 거란군의 퇴각' 이외에 또 그 이상의 어떠한 기고가 있을 것인가?

따라서 청주행궁에서 개최된 연등회 제례에서는 오직 '대장경 각판을 맹서하는 발원문(發願文)을 기고(祈告)함으로써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을 것이 확실시(確實視) 된다.

둘째로 2월 15일은 석가모니의 열반일(涅槃日)⁵³이다. 청주 행궁(淸州行宮)에서 이러한 불교적인 특별한 날에 때를 맞추어, 〈연등회〉라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공식적인 집회(法會)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식(正式)으로 의식을 갖추어 '대장경의 각판을 발원'하는 제사를 진솔(眞率)하고도 진지(眞摯)하게 올림으로써, '제

불다천의 보답으로 침략한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라는 '제사에 보답(報祠)'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 날(2월 15일)에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거행한 후, 그 이후에는 으레 2월 보름날에 연등회를 개최하게 하였다'는 사항은, '대장경의 각판을 발원'한 바로 그 대원(大願)을 오래토록 기념하기 위하여 〈연등회〉의 개최일자를 고정화함으로써, 그 특별한 의미를 더욱 부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로 2월 15일에 〈연등회〉를 개최한 장소인 '청주(淸州)'라는 지역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청주는 공교롭게도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 각 삼국(三國) 국가 경계선의 세 지점이 맞닿았던 접경지(接境地)이면서, 고려시대 중원(中原) 지역 교통의 십자로(十字路)에 위치한 요지(要地)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거점(據點) 도시였다⁵⁴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청주에서 개경(開京)까지는 도보로 6~7일이 소요되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다.

바로 위와 같은 청주 행궁에서, 현종은 개경으로의 환도하기에 앞서서 공식적인 국가의례인 〈연등회〉를 특별히 개최한 이유는, 먼저 대내적으로는 전란의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혼란을 진정시킬 필요가 절실하였고, 나아가 민족적 대동단결과 모든 계층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의 마련하기 위한

53) 석가모니의 열반일을 택하여 〈연등회〉를 개최한 사항은 '좀 더 불교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함'이라는 견해 ① 安啓賢 1959, 燃燈會攷, 『백성욱박사 頌壽기념 불교학논문집』: 『韓國佛教思想史研究』(1983)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38. 참고. ② 安智源 1999.12, 110. 참고.)도 있다.

54) 역사적으로 볼 때, 청주 지역에서는 ① 1305년에 목판본 『金剛經(금강경)』이 원흥사에서 간행되었고, ② 1377년에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直指(직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를 흥덕사(興德寺)에서 간행하였던 문화적 거점도시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청주에서는 ③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단종 때 『明心寶鑑(명심보감)』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대장경 각판의 발원’이라는 기치(旗幟)를 높이 내세우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장경 각판의 발원’이라는 기치는 거란에게 ‘고려 또한 송(宋)나라처럼 대장경을 판각(板刻)할 수 있는 고도(高度)의 문화국가라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浮刻)시키면서, 거란과 고려는 이제부터 양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대신에 대장경의 판각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나누자’는 평화외교적인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종은 고려 국토의 중원에 위치하여 사통팔방(四通八方: 전라 경상 충청 경기(개성) 강원 등)으로 국민들이 집결하거나 왕래하기 용이하고, 동시에 소문(所聞: 정보)이 팔방으로 신속하고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교통요충지인 청주에서 <연등회>를 개최하여 ‘초조대장경 각판의 서원(誓願: 發願)’을 하늘에 기고(祈告)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킴과 동시에 민족적

단결과 결속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침략한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평화적인 전쟁의 종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술에서 우리는,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기록된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신해(辛亥) 2년(1011), 2월 13일(丁巳)조 및 15일(己未)조에 기록된 상황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 또한 역사적 진실(史實)을 담고 있는 기록이라고 확인된다. 또한 안홍점의 제안에 따라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도록 신명(諸佛多天)이 보답하는 제사(報祠)를 현종이 직접 올렸다’는 것은 바로 2월 15일에 청주 행궁에서 거행된 <연등회>의 의식 및 제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연등회의 제례에서 신명께 기고(祈告)한 내용은 바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⁵⁶⁾

55) 위와 같은 필자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으로, 김윤근 교수는 고려대장경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현종2년(1011) 왕은 거란의 침입으로 전라도 나주지방까지 피란을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은 여러 지방에서 표출되고 있는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양상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며, 이반되어 가는民心 또한 感知하였을 것이다. 침입한 거란군의 퇴치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나라 안의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전 국토의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퇴치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그 대립 충돌세력들의 상호화합과 문화적 통일을 위해서 ‘부인사의 경판(초조대장경)’을 조성하려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김윤근 2008, 500)”고 논술하고 있다.

56) 따라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타난 초조대장경 관련 사항과 『고려사절요』 제3권, 신해 2년(1011) 2월 13일조와 15일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들 내용을 六何原則에 따라 再記述하여 보면, “현종과 그의 신하들은, 1011년(현종 2) [음력] 2월 15일에, 청주 행궁(淸州行宮)에서, <연등회>를 개최하여,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신명(神明: 諸佛多天)께 초조대장경의 판본(板本)을 각성(刻成)할 것을 발원하고 맹서(誓)하는 기고문(祈告文)을 올렸다.”는 내용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하늘에 올리는 기도문은, 지금에 와서도, 그 의식이 끝나면 기도문을 쓴 종이매체는 촛불에 태워서, 그 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또 다른 의식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수록된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재조대장경의 각판(刻板) 발원문인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경우, 물론 그 기고문은 의식이 끝나면서 촛불에 태워서 그 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고문은, 이규보가 고종 왕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고문의 초안(草案)이 특별하게 남아 있어, 이것이 이규보의 개인문집인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이상의 논술에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장소(發願地)는 청주 행궁(淸州行宮)이며, 그 발원일자(發願日)는 1011년(현종 2) 2월 15일 임이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규명되지 못한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장소(發願地)와 그 일자(發願日)의 문제를 고구(考究)하여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단서를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거란의 군대가 고려를 침략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병은 송악성(松岳城: 開京: 고려 국토)에서 물러가지 않으므로, 이에 현종은 신하들과 함께 위없는 대원(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각성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사가 스스로 물러갔다'는 내용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거란군(軍)이 침략하여 우리의 국토에서 고려군과 전쟁을 치른 기간, 즉 1010년 12월말 경에 현종 임금이 남순(南巡: 몽진)하는 시점부터 개경(開京)으로 환궁(還宮)하는 1011년 2월 중순 사이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거란을 물리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혹은 신명(諸佛多天)에 기도하는 제사(報祠)를 올린 사항을 정사(正史)의 기록에서 추적·검색하고, 검색된 사항들과 이규보의 기고문 내용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지와 발원일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둘째, 거란군의 침략에 의한 고려군과의 전투 상황 및 약 한 달 이상에 걸친 현종의 남순(南巡: 몽진) 여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11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고려사절요』와 『고려사』의 기록에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1011년 2월 초순 현재 거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그리하여 『고려사절요』와 『고려사』에서, '현종 2년 2월 정사일(丁巳: 13일)조, 기미일(己未: 15일)조, 경신일(庚申: 16일)조, 정묘일(丁卯: 23일)조'의 기록, 즉 '현종이 청주(淸州)에 머물렀을 때의 안홍점의 진언(進言) 및 연등회(燃燈會)의 개최' 사항을 주목하였다.

이들 기록의 내용 중 안홍점은 이른바 '감악 신사의 기이'는 신명이 현종의 피난을 도와준 것임을 제시하고, 여기에 '전진 부견의 고사'를 부연하면서 '신명이 돕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안홍점은 '신명이 보답할 수 있는 제사(報祠)를 지낼 것을 현종에게 진언(進言)하였고, 현종은 이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기록한 '초조대장경의 초창지단(初創之端)'의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 또한 역사적 진실(史實)을 담고 있는 기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홍점의 제안에 따라,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도록 신명(諸佛多天)이 보답할 수 있는 제사(報祠)를 현종이 직접 올렸다'는 것은 바로 '2월 15일'에 '청주 행궁(淸州行宮)'에서 개최된 <연등회>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연등회의 제례에

서 신명께 기고(祈告)한 내용은 곧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이었음을 입증하였다. (發願日)는 1011년(현종 2) 2월 보름날(15일) 요컨대,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장소(發願地)는 청주행궁(淸州行宮)이며, 그 발원일자가 (發願日)는 1011년(현종 2) 2월 보름날(15일)임이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高麗史』 제4권, 世家 제4, 현종 庚戌 원년(1010) 및 二年條.
- [2] 『高麗史』 第129卷, 列傳第42, 反逆3, 崔忠獻[崔怡·崔沆·崔瑄]條.
- [3] 『高麗史節要』 제3권, 玄宗 元年 및 二年條.
- [4] 金斗鐘. 1980.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 [5] 김성수. 2005.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書誌學研究』, 32: 35-60.
- [6] 김성수. 2006. 고려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405-428.
- [7] 김성수. 2010. 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 『佛敎研究』, 32: 133-166.
- [8] 金潤坤.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 [9] 김윤곤. 2008. 대구 符仁寺藏 고려대장경판과 그 특성. 『민족문화논총』, 39: 441-511.
- [10] 남권희. 2007. 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 『書誌學研究』, 36: 81-121.
- [11] 남권희. 2009. 高麗 初雕大藏經의 研究: 日本 南禪寺 所藏本을 중심으로. 『제2발표: 초조대장경의 현존 현황과 재조대장경과의 비교』, 1-44.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중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 학술회의』, 2009년 9월 11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 [12] 남권희, 정재영. 2010. 日本 南禪寺 所藏 高麗初雕大藏經 調査報告書. 『南禪寺藏 高麗版 初雕本大藏經』 調査完了 報告會. 2010년 1월 25일. 일본 교토: 가든팔래스호텔 쿠라마룸.
- [13] 文暲鉉. 1991.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李箕永博士 古稀紀念論叢, 佛敎와 歷史』, 477-530.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 [14] 朴泳洙. 1959. 高麗大藏經板의 研究. 『白性郁博士 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413-453. 서울: 동국문화사.
- [15] 常盤大定. 1913.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28-321, 1164. 재인용: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21.
- [16] 安啓賢. 1959. 燃燈會攷. 『백성욱박사 頌壽기념 불교학논문집』. 『韓國佛敎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238.
- [17] 安啓賢. 1975. 大藏經의 雕板. 『한국사』, 제6권: 19-69.

- [18] 安智源. 1999. 高麗 燃燈會의 기원과 성립. 『震壇學報』, 88: 87-114.
- [19] 오윤희. 2011.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서울: 불광출판사.
- [20] 윤용혁. 2009.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 『제4발표: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판 소실 문제』, 1-14.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증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 학술회의』. 2009년 9월 11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 [21]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
- [22]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1237)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雜著. 18-20(張).
- [23] 李箕永. 1976.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권: 1-17.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 [24] 張愛順 외. 2006. 『고려대장경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25] 장애순. 2006. 高麗大藏經의 편찬 배경. 『高麗大藏經의 研究』, 19-58.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26] 정필모. 1987. 고려초조대장목록의 복원. 『書誌學研究』, 2: 3-108.
- [27] 池內宏. 1923.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13(3): 307-362.
- [28] 蔡忠順. 玄化寺碑陰記. [online]. <<http://blog.daum.net/ydoy0000/11786000>>.
- [29] 千惠鳳. 1980.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 [30] 千惠鳳. 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 [31] 최연주. 2009. 符仁寺藏 高麗大藏經 조성과 체제. 『제1발표: 초조대장경의 성립 배경과 성격』, 1-11.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증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 학술회의』. 2009년 9월 11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 [32] 한기문. 2009.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초조대장경판 소장 배경. 『제3발표: 부인사의 위상과 초조대장판 소장 경위』, 1-14.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증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 학술회의』. 2009년 9월 11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oryeosa*. Vol. 4, Sega 4. The 1st and second year of King Hyunjong's reign.
- [2] *Goryeosa*. Vol. 129, Yeoljeon Je-42. Banyok 3, Choe Chung-hon [Choe Yi, Choe Hang, Choe Ui] Jo.
- [3] *Goryeosajeolyo*. Vol. 3. Sega Je-4., The 1st and second year of King Hyunjong's reign.
- [4] Kim, Du-Jong. 1980. *Hanguk Goinswae Gisulsa*. Seoul: Tamgudang.
- [5] Kim, Sung-Soo. 2010. "A research on the motives and background of making Goryeo-Daejanggyeong(Tripitaka Koreana)." *Bulgyo-yeongu*, 32: 133-136.

- [6] Kim, Sung-Soo. 2006. "The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s of Chojo Tripitaka Koreana and Chojo Print held by Horim Museu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405-428.
- [7] Kim, Sung-Soo. 2005.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on Chojo-Taejanggyong, Korea First Tripitak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2: 35-60.
- [8] Kim, Yoon Gon. 2002. *Goryeo Daejanggyeongui Saeroun Ihae*. Seoul: Bulgyo Sidaesa.
- [9] Kim, Yoon Gon. 2008. "A study on Goryeo Daejangkyongpan(大藏經板) stored in Buin temple(符仁寺) Daegu and it's character: Focus on Bulmyeonggyeong(佛名經)." *Minjok Munhwa Nonchong*, 39: 441-511.
- [10] Nam, Kown-Heui. 2007. "A study 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of the Nan-Zen Ji."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6: 81-121.
- [11] Nam, Kown-Heui. 2009. Goryeo Chojo Daejanggyeongui yongu: Ilbon Namseonsa sojangul jungsimuro. 『Presentation 2: Chojo Daejanggyeongui Hyeonjon Hyeonhwangwa Jaejo Daejanggyeonggwagui Bigyo』, 1-44. 『Goryeo Chojo Daejanggyeonggwwa Buinsa: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and Palgongsan Joint Conference』. Sept. 11, 2009. [Taegu]: Palgongsan Buinsa Samgwangnu.
- [12] Nam, Kown-Heui, & Jeong, Jae-yeong. 2010. Ilbon Namseonsa sojang Goryeo Chojo Daejanggyeong josa bogoseo. *Namseonsajang Goryeopan Chojobon Daegang-gyeong Josa Wanryo Bogohoe*. January 25, 2010. Kyoto, Japan: Hotel Garden Palace.
- [13] Mun, Gyeong-hyeon. 1991. "Goryeo Daejanggyeong jojo-ui sajeok gochal." *Bulgyowa Yeoksa: Yi Gi-yong Baksa Gohui Ginyeom Nonchong*, 477-530. Seoul: Korean Institute for Buddhist Study.
- [14] Park, Yeong-su. 1959. "Goryeo Daeganggyeongpanui yeongu." *Baek Seong-uk Baksa Songsu Ginyeom Bulgyohak Nonmunjib*, 413-453. Seoul: Dongguk Munhwasa.
- [15] Tokiwa, Daijō. 1913. "Daejang-gyeong joingo." *Cheolhak Jabji*, 28-321, 1164. Quoted in: Kim, Yoon-gon. *Goryeo Daejanggyeongui Saeroun Ihae*, 21. Seoul: Bulgyo Sidaesa, 2002.
- [16] An, Gye-hyeon. 1959. "Yeondeung hoego." *Baek Seong-uk Baksa Songsu Ginyeom Bulgyohak Nonmunjib*. In *Hanguk Bulgyo Sasangsa Yeongu*, 238.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1983.
- [17] An, Gye-hyeon. 1975. "Daejang-gyeong-ui jopan." *Hanguksa*, 6: 19-69.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18] Ahn, Jee Won. 1999. "The origin of Yondunghoe, the state Buddhist festival, and its establishment in the Goryeo dynasty." *Jindan Hakbo*, 88: 87-114.
- [19] Oh, Yun-hui. 2011. *Daejanggyeong, Cheonnyeonui Jihyereul Dameun Geureut*. Seoul: Bulkwang.

- [20] Yun, Yong-hyeok. 2009. Monggo chimibgwa Buinsa Daejanggyeongui sosil. 『Presentation 4: Mongo Chimibgwa Buinsajang Daejanggyeongpan Sosil Munje』, 1-14. 『Goryeo Chojo Daejanggyeonggwa Buinsa: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and Palgongsan Joint Conference』. Sept. 11, 2009. [Taegu]: Palgongsan Buinsa Samgwangnu.
- [21] Uicheon. “Daeseonwang jejonggyojang joinso.” *Daegak Guksa Munjib*. Vol.15.
- [22] Yi, Gyu-bo. “Daejanggakpan gunsin gigomun(Jeongyu(1237)year).” *Dongguk Isanggukjip*. Vol.25, Japjo 18-20.
- [23] Yi, Gi-yeong. 1976. “Goryeo Daejanggyeong, geu yeoksawa uiui.” *Goryeo Daejanggyeong*, 48: 1-17.
- [24] Jang, Ae-sun. 2006. “Goryeo Daejanggyeongui pyeonchan baegyeong.” *Goryeo Daejanggyeongui Yeongu*, 19-58.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25] Jang, Ae-Sun, et al. 2006. *Goryeo Daejanggyeongui Yeongu*.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26] Jeong, Pil-mo. 1987. “Goryeo Chojo Daejang moknokui bokw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 3-108.
- [27] Jinae Gwang. 1923. “Goryeoyo no Daejanggyeong.” *Dongyang Hakbo*, 13(3): 307-362.
- [28] Chae, Chung-sun. *Hyeonhwasa Bieumgi*. [online].
<<http://blog.daum.net/ydoy0000/11786000>>.
- [29] Cheon, Hye-Bong. 1980. *Na-Ryeo Inswaesului Yeongu*. Seoul: Gyeongin Munhwasa.
- [30] Cheon, Hye-Bong. 1990. *Hanguk Jeonjeok Inswaesasa*. Seoul: Bumwoosa.
- [31] Choe, Yeon-ju. 2009. “Buinsa jang Goryeo Daejanggyeong joseonggwa cheje.” 『Presentation 1: Chojo Daejanggyeongui Seonglib Baegyeonggwa Seonggyeok』, 1-11. 『Goryeo Chojo Daejanggyeonggwa Buinsa: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and Palgongsan Joint Conference』. Sept. 11, 2009. [Taegu]: Palgongsan Buinsa Samgwangnu.
- [32] Han, Gi-mun. 2009. “Goryeo jeongi Buinsai wisanggwa Chojo Daejanggyeongpan sojang baegyeong.” 『Presentation 3: Buinsai Wisanggwa Chojo Daejangpan Sojang Gyeongwi』, 1-14. 『Goryeo Chojo Daejanggyeonggwa Buinsa: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and Palgongsan Joint Conference』. Sept. 11, 2009. [Taegu]: Palgongsan Buinsa Samgwangnu.